

대인시장



◇최양선 작 '이상한 문'

대인예술시장 안에 있는 원양페백 옆 좁은 골목길에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 동화 예나 등장할 법한 고양이 캐릭터 모양의 철문이 들어섰다. 대인시장 입주 작가 중 한 명인 최씨는 골목길이 취객들로 몸살을 앓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용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미술 작품을 만들었다. 주간에는 시장과 작가들의 작업실, 시민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밤에는 취객들의 출입을 막는 기능을 하게 된다. 고양이 이미지는 대인시장 작가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 '뽕뽕이'에서 빌려왔다.

◇전현숙 작 '신혼부부'

철문을 열고 들어서면 작은 보트에 앉아 있는 신혼부부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자칫 칙칙한 분위기를 풍길 수 있는 골목이 알록달록 벽화로 환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전씨는 폐백상가 옆에 있는 골목이라는 점에 착안해 그림을 통해 혼례 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었다. 전씨 특유의 과장된 화법으로 표현된 신혼부부는 물 위에서 작은 보트를 타고 한가롭게 신혼 여행을 즐기고 있다. 밝고스레한 신부의 얼굴에서는 부끄러움이, 무뚝뚝하게 생긴 신랑의 얼굴에서는 행복함이 묻어나는 작품이다. '이상한 문'과 묘한 조화를 이룬다.



8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지휘 서희태씨

케니 지는 색소폰 연주자의 대명사로 꼽힌다. 그의 앨범은 전세계적으로 8000만장 넘게 팔렸다. 일반인들이 색소폰에 친숙해진 데는 케니 지의 영향이 컸다. 그의 음악은 CF 등에도 자주 등장해 제목은 몰라도 선율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곡들이 많다.

케니 지가 광주 무대에 선다. 1995년 첫 내한공연을 가진 이후 한국에서는 여러 차례 공연을 했지만 광주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오후 6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

10세 때 처음으로 색소폰 연주를 시작한 그는 1982년 데뷔앨범 'Kenny G'에 이어 발표한 'G Force'가 200만장 이상 팔렸고 특히 'Breathless'는 전세계에서 1500만장이 팔리며 메가히트를 기록했다. 이번 연주회에는 드라마 '배트맨 바이러스'의 연주를 맡았던 밀레니엄오케스트라가 함께 협연한다. 지휘는 서희태씨가 맡는다.

연주 레퍼토리는 'Going home', 'Songbird', 'The moment', 'Forever in love', 'Havana', 'Heart and Soul', 'Romance', 'Ocean Breeze', 'I Will Always Love you' 등으로 그의 대표작을 망라한다. 티켓 가격 19만8000원 ~ 9만9000원. 단체 관람시 최고 20% 할인. 문의 062-523-03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골목 구석구석, 키스해링을 찾아라

광주 대인예술시장과 예술의 거리 골목 구석구석에 꼭꼭 숨어 있는 미술 작품을 찾아보자. 광주문화재단이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 미관조성을 위해 진행한 '키스해링을 찾아라' 작품들이 완성됐다. 문화재단은 키스해링이 거리미술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한 것처럼, 거리에 작품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편안한 장소로 다가가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했다. 참여작가는 전현숙·최양선·백중휘·홍원철·이호동씨 등이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 발견한 작품 앞에서 한 장의 사진을 남기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문화재단은 내년에 작품들을 추가로 설치하고, 시민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이호동 작 '달을 낀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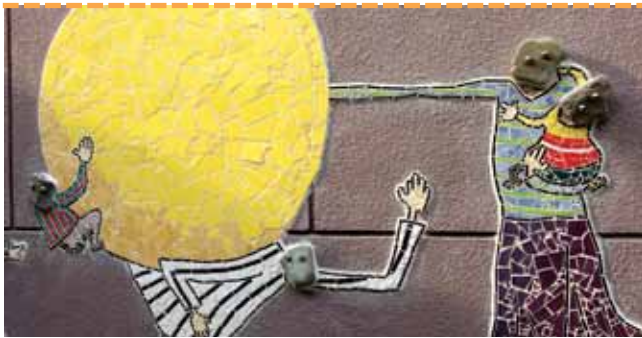
예술의 거리 사거리를 지나면 나오는 그린섬 미술학원 옆 벽면에는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씨는 가족들이 희망과 순수함을 상징하는 달을 빌려와서 즐겨워하는 모습을 알록달록한 타일과 돌로 새겼다. 아버지는 둥근 보름달을 등에 업고 가족들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어머니는 막내를 안고 아버지를 기다리는 모습이 해학적으로 연출됐다. 벽화 속 가족의 풍경은 서민들의 모습으로, 예술의 거리 상인들과 시민들이 가족처럼 어우러져 지냈으면 하는 작가의 바람이 녹아 있다.

◇백중휘 작 '거룩한 계보'

의재 허백련의 초상이 예술의 거리에 새겨졌다. 의재 선생의 얼굴은 보물 찾기를 하는 것처럼 골목 끝에 숨겨져 있다. 무등갤러리 맞은편 골목길을 15m 가량 따라가다가 보면 끝에 다다라 호반 화단의 거목 의재 선생의 초상이 나온다. 골목 앞 양은 공동문화예술제를 진행하면서 그려진 벽화들이 장식하고 있다. 백씨는 붉은 벽돌벽에 시멘트를 입힌 뒤 시멘트를 일일이 파내 가면서 얼굴을 새겼다. 작가는 선배 예술가들이 많이 거쳐간 예술의 거리에 광주 예술 정신의 뿌리를 새기고 싶었다.

◇홍원철 작 'Art of Bridge'

예술의 거리 사거리에 자리한 짧은 예술가들의 전시·소통 공간 '궁다방' 간판도 작가의 작품으로 만들어졌다. 홍씨는 익살스런 원숭이가 바나나 모양의 다리를 놓는 모습의 평면 작업과 함께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원숭이 조각상을 배치했다. 작가는 궁다방이 짧은 예술가와 예술의 거리, 예술과 시민을 이어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었다. 짧은 작가들의 자유분방한 작품들을 위주로 전시하는 궁다방과 재기 발랄한 원숭이들의 이미지가 어우러져 시선을 사로잡는다.



예술의 거리

야예술극장 시민참여작품 무대에

안나 리스폴리 '집에 가고 싶어' 등 7개 공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이 시민 참여형 작품을 잇따라 선보인다.

아시아예술극장은 오는 6일 커뮤니티 퍼포먼스 작가 안나 리스폴리의 작품 '집에 가고 싶어' 공연을 비롯해 '커뮤니티 퍼포머티비티(Community Performativity)' 작품 7개를 내년 10월까지 선보인다. 이는 시민들이 작품 기획,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하는 형태다.

'집에 가고 싶어'는 전남대 기숙사생 600명과 관현악반이 함께 만드는 빛의 퍼포먼스다. 이후 내년 2월14일과 15일에는 장은영 작가가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라는 주제로 판소리 춘향가의 사설과 창에 관한 다양한 문화·정치학적 해석을 시도한다.

헬가드 하우크(Helgard Haug), 슈테판 카에기(Stefan Kaegi) 등 극작·연출가들로 구성된 독일 아티스트 그룹 리미니 프로토콜은 내년 4월19일, 20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100% 광주'라는 제목으로 무대를 꾸민다.

안은미 무용가는 6월20일 아시아문화마루에서 '죽음'이라는 주제로 광주 시민들의 잠재된 무의식을 포착해 춤의 형식으로 풀어낸다.

이 밖에 캐나다의 '마말리안 다이빙 리플렉스'는 8월15일 아시아문화마루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예요'를, 임민욱 작가는 10월 17일 '공동체와 개인', '장소성과 기억의 문제' '근대화와 원시성' 등의 주제로 광주 5·18을 조명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창업 31주년 KJBH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2013년 송년 디너쇼



- 프로그램 -

18:30 입장
19:00 식사
20:00 공연
21:30 퇴장

일시 | 2013년 12월 12일(목) 18:30

장소 |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 볼룸

165,000(세금포함)

예약문의 | 062)228-4711~2

남지인